

지속 성장의 틀, 글로벌 지향의 건설 문화 구축을

- 자기 반성의 기반 위에 혁신을, 투명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어 -

올해로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환갑을 맞았다. 건설산업은 해방과 전후 복구기를 거쳐 1960년대 이후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공업단지 등 SOC 시설을 구축하여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여 왔다. 이처럼 우리 건설산업은 고도 압축 성장을 견인하면서 그 어떤 분야보다 산업적 자부심이 컸었다. 하지만 21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그동안 애써 쌓아 온 명성에 상처를 입었다. 크고 작은 사고와 비리 등으로 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의 기술력 또한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젊은 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3D 업종으로 전락한 지경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발전해 왔고, 건설산업의 미래 또한 인류와 함께할 것이다. 문제는 여하히 건설산업의 현실을 진단하여 미래를 예견하고 그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건설저널」에서는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한국 건설산업 60년의 성장 과정 반추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맞이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참 석 자

- 김종훈 사장(한미파슨스)
- 심옥진 부회장(수성엔지니어링)
- 이복남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순병 부사장(파슨스 브링커호프 코리아)
- 정희용 회장(청석엔지니어링) <이상 가나다순>
- 사회: 김수삼 부총장(한양대)
- 일시: 2007년 5월 30일(수) 오후 2 4시
- 장소: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사회: 아마도 금년을 건설업 60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1947년에 창립된 조선토건협회의 설립을 근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1958년에 「건설업법」이 생기면서 건설업면허가 삽부토건을 제1호로 하여 시작되었지만 이보다 약 10년 전부터 소급해서 건설업의 역사를 찾고자 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60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환갑, 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건설업도 새로운 미래를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건설업은 국가와 사회 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잔재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는 한편 시장을 창출해냈습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이 주도하던 건설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했고, 급기야는 개발형 사업, 민간투자형 사업까지로 확대되는 등 선진국 모델

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건설업의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60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심옥진: 지난 60년 건설사 중 196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제가현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30년 동안의 한국 건설산업의 의미를 되짚어보려고 하겠습니다. 1960년대는 개발 가능한 자원은 물론 제품, 교역 거래, 국제 관계, 경제·사회·문화적 요구 등 건설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빈약하였습니다. 자금, 기술, 지식, 경험 등 건설사업 요소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높은 학향열, 잘살아보자는 기술 입국의 국민적 열망, 그리고 건설 기술인들의 아카데미화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국적인 관료 시스템도 한몫을 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온 국민이 희망을 향해 부르는 큰 합창이었습니다. 상세하게 보자면 당시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는 거의 외국 의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의뢰조를

“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건설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성장의견인차였습니다. GDP에서차지하는비중도 1/4에서 1/5 수준을 커버해왔고, 고용과각종시설공급을 통한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결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한국 경제의오늘날의성장에는성공적인국토개발과 한국건설업의기여가 결정적인요인이었던것입니다. ”



김수삼 부총장

받기위해서는 F/S, MP, Appraisal Report 등상위엔지니어링도 입이불가피했으며, 외국의코드와규정을사용해야했습니다. 특히, 모든문서를영어로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러한외국의코드와규정, 영어문서, 공사감독등건설프로젝트전반에걸친당시경험은 이후해외진출에큰보탬이되었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중반부터시작해서 30여년만에세계최빈국에 속하던한국을세계경제대국 10위권을넘나드는경제강국으로만든 현대사의 견인차는바로 한국의 건설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30여 년 간은 말 그대로 한국건설의르네상스시기였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정희용: 해외, 특히동남아등에가보면마치예전에우리가차관을 받아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 개량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6개월이다르고1년이다릅니다. 3년전의모습하고는 전혀 판판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가는데 유럽이 300년, 일본 80년, 대만 50년, 그리고 우리나라가 30년 걸렸다고합니다. 그래서저는동남아등개도국들이우리나라를따라오는것은시간문제라고생각합니다. 자원이나식량이풍부하고, 앞선나라들로부터보고배우는점도많기때문에시간이많이단축될것이기때문입니다. 우리가이시점에서과거에대해자부심을가지고앞으로세계시장에나아가야하는데무언가자신있는아이템이 있어야하겠습니다. 그동안의발자취를 보면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등은경쟁력을갖춰세계적인상품을우리손으로만들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김종훈: 1984년해외건설수주가130억달러입니다. 그때이후로많이꺾어지고, 중동시장이동남아시아시장으로많이전환되면서해외 시장 자체가 다각화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중반까지많은발전이 있었습니다. 국내도개발시대였기때문에건설업자체가스타산업으로평가받았고, 거의모든그룹사

들이 건설업에 진출했었습니다. 심지어건설업에 진출해야그 조직이성공하는것으로생각되었습니다.

불행한것은양적으로는많은발전이있었지만 질적발전은부족했다는것입니다. 척도의정확한자대가없기는하지만양적지표를 100으로봤을때질적지표는많이부족할것으로보입니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우리가 지은 기념비적인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과정을지금이시점에서모두우리기술만으로가능한지는의문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1930년대 지어진건물로미국의순수한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바탕으로건설되었습니다. 놀라운점은10층의이빌딩이지금으로부터 80년전에 지어졌는데 13.개월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건축물로 지어졌지만 미국의 1930년대와 비교하여 우리가지금어떠한지고민해봐야할것입니다.

이순병: 초창기우리나라의건설제도나기술은대부분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한국전쟁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전쟁을기화로건설산업에큰변화가일어났습니다. 불행에서도 새로운 싹이 나듯이전쟁 이후에미국식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건설업체들이 월남과 중동 등지에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되었습니다.

건설업성장을견인한동력을살펴보면 1950년대는전후복구사업이중심이되었습니다. 그리고1960년대를중요한시기로보는데, 그동력은사람이라고봅니다. 구체적으로박정희, 정주영이라는두 분이 경제적인측면에서상당한기여를했다고봅니다. 1970년대에는중화학 및제철, 그리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시작합니다. 건설업이본격적으로산업과경제를뒷받침하기시작했던것입니다.

이복남: 과거 60년을 돌아보면 일단 건설업은 상당히 성공해 왔습니다. 최근IMD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국가경쟁력순위는 29위인데비해건설업은시장성이나해외시장점유율면에서



김종훈 사장

1984년 해외건설 수주가 130억달러입니다. 그때이후로 많이 꺾어지고, 중동 시장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해외 시장 자체가 다각화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국내도 개발시대였기 때문에 건설업 자체가 스타산업으로 평가받았고, 거의 모든 그룹사들이 건설업에 진출했었습니다. 심지어 건설업에 진출해야 그 조직이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법과 제도 등이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개 법과 제도의 경우 시장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건설협회가 설립된 시기가 1947년인데 비해 「건설업법」 제정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건설산업도 상당히 발전해 있고, 양에서 질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한번 정도 턴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은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인데 일본 건설업의 기반은 배우지 않고 법만 베끼다 보니 땀질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1/5 수준을 커버해왔고, 고용과 각종 시설 공급을 통한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한국 건설업의 이러한 성장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특이한 시스템적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1960년대 초반에 일찍이 건설부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1960년대 들어와서는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만들어서 소위 국가 기간시설물에 대해 전문화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건설업은 특이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구현이 오늘날 한국 건설업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업가로는 고정주영회장, 고이재준회장, 고조정구회장, 최종환회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용역쪽에서도 김형주회장, 김해림회장, 전경렬회장 등이 엔지니어링의 기반을 튼실하게 닦았으며, 김중업, 김수근 같은 뛰어난 건축가들이 나타나 한국 건축의 이미지 형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및 기술인의 등장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CEO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학술단체 등을 이끌어주면서 전문가들

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정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은 이러한 도전정신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건설업 60년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건설업 60년이 주는 교훈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옥진: 한국 건설업의 궤도를 바꿔놓은 프로젝트들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SOC 프로젝트를 들자면 1970년 경부고속도로 완공, 1973년 소양강댐 건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1976년 청계하수처리장 건설, 1996년 여천 원유비축기지 건설, 2000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이 있습니다. 산업설비도 1973년에 완공된 포항제철을 비롯하여 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산업에 꼭 필요한 철과 전력을 공급해왔습니다. 해외건설 역시 1960년에 처음 진출한 이후 베일 산업학, 리비아 대수, 페트로나스타워 등과 같은 기념비적인 시설물을 건설해왔습니다. 반면, 지난날을 돌아켜 보면 1970년 와우아파트,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및 대구 지하철 붕괴 공복고 등 과 같은 뼈아픈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건설산업은 각종 계획을 추진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김종훈: 심 부회장이 이상세한 얘기를 해주셔서 한 가지 보완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의 궤도를 바꿔놓은 사건 중에서도 태우정권 때 수립되었던 2000호 건설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우리 건설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우리 건설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고속도로, 원자력 발전소, 고속철도 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록 국내에

“최근에미국, 영국에서는과학과 기술을기반으로하는
국가지속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건설산업을 동참시키고있습니다.
제가볼때 국가 성장동력 정책에건설산업이 참여하는 것은좋은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충분조건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미래지향의건설 문화를 구축하면서
그속에서지속 성장의 틀을 마련하는것이중요합니다.”



심옥진 부회장

서는경험이없지만세계시장에서10%이넘는건물을지을정도로
초고층분야에서도경쟁력을확보하고있습니다. 하지만실질적으로
는다른나라에비해경쟁력이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인건비가너
무비싸기때문입니다. 예컨대중국제상품은상당히쌉니다. 지금은
중국 상품이라고하면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시간이 지날수록중
국제품이전세계를장악하게될것입니다. 이것은물품에만해당되
는것이아닙니다. 건설시장에서도중국업체가가격경쟁력을통해
해외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문제는 우리
건설업체가앞으로심각하게고민해보아야할이슈입니다.

이복남: 이미말씀드렸지만우리가성장한것은명확한사실입니다.
이미시장이정부쪽을나무라는수준까지올라갔습니다. 하지만아
직도 우리 사회에서는정부가 물을 지배하는자로서의 역할뿐 아니
라정책을담당하는역할을함께하다보니항상중심이되어있습니
다. 그래서시장에서는항상정부가지원개념으로바뀌어야한다고
문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 법과제도가향상되는것, 될수있는것
만넣다보니법이두꺼워지는상황이되고, 그법이중국에는시장의
자율적성장에걸림돌이되고있기때문입니다.

이순병: 결론적으로관 · 산유착이계속되고있습니다. 아직도일부
고쳐지지않고있는데어떤방법으로도풀어야할과제입니다. 저는
1998년 정부에서담합척결을외치면서강력한제재를했던처분을
건설업에광장한변화를가져온사건으로평가합니다. 그때이후우
리나라에서는담합이거의사라지게되었습니다.

사회: 지난60년을회고하는과정에서긍정적 · 부정적인요소가많
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는한국 건설업이 과거의 흔적을 바탕으로
미래에어떻게나아가야할지에대해생각을모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훈: 몇가지키워드를보면생존, 경쟁력, 글로벌스탠더드등이

있습니다. 생존의문제는 업살이나아니면 실제로 심각한지가핵심
일것입니다. 5대건설기업의실적이좋기때문에다소엄살적인측
면이 있는데, 문제는중소기업과설계, 엔지니어링, CM 업체등 소
프트웨어를다루는기업들이비전이있는가, 앞으로살길은무엇인
가 하는 점입니다. 경쟁력의문제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와국내시장에서몇몇특출한리더들의도전정신과리더의역
할에의해기업이좌지우지되면서크게성장하기도하였으나지금은
오너형 도전자도 없고 투지도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원가 경쟁력,
엔지니어링 경쟁력, 매니지먼트 경쟁력 등이 많이 문제시되고 있습
니다. 글로벌스탠더드의문제는우리가앞으로극복해야할큰과제
중하나입니다. 우리는이미선진국형경제구조와건설시장에진입
한만큼그에걸맞은옷으로 갈아입어야 건설산업의지속적인 경쟁
력을확보할수있습니다.

이복남: 미래의 측면에서패러다임 쉬프트를 보면양에서 질로, 공
급 중심에서 시장 · 수요 중심으로, 그리고산업자재에서도제조업
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도코스트
를중시하는것에서최근들어서는가치를높이는것에중심을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느끼고계시겠지만시장자체가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속도로변에 아시아하이웨이 문구가 등장했는데
과연국내법과제도로빠르게변하는상황을따라갈수있는지의문
입니다. 리더십 역시 개인의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이나 스마트한
리더십에서 팀워크 중심의 리더십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러한측면
에서법과제도가환경변화에맞춰글로벌화되어야합니다. 글로벌
화는 말보다는실천이 중요한데글로벌화를수용할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필수적입니다. 지난한달간국내외현장을심층분석하
였는데인력 문제가글로벌화의가장 중요한요인인것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현 인력(글로벌 인력)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인력이
없다는것입니다. 우리가현재전문가양성체계를갖추고있는지깊
이 진단해보아야할것입니다.



이복남 연구위원

최근 건설교통 부문 R&D 예산을 보면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전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인력 부문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에서도 기초 인력양성에서 끝내지 말고 생애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는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자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고 보는데 양에서 질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옥진: 미래 건설산업은 미래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인만의 힘으로 미래의 삶을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해나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이 지금까지와 같이 미래에도 인류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속 성장의 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영국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지속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제가볼 때 국가 성장동력 정책에 건설산업이 참여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의 건설문화를 구축하면서 그속에서 지속성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거울이고 미래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DNA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글로벌지향의 건설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건설문화라는 말이 많이 나와 조사를 해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건설문화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문화는 정체성이고 건설산업을 한 묶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순병: 건설업의 당면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세계표준화, 가격경쟁력 문제와 직결되는 생산구조개편, 그리고 해외경쟁력과 직결되는 언어문제 등입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기술자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겪으므로 외국어구사 능력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자금의 안정성, 국제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인력발굴, 노령화 대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희용: 국내에서 공사물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해외입니다. 일본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나가는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이 우리와 비교하여 40배 이상 됩니다. 특히, 일본의

ODA는 차관 원조가 대부분이어서 국익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에게 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면 가장 걸리는 곳은 일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으로 예전부터 해외에 기반을 다져왔고,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줘 결국 국에는 일본 건설기업이 사업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대한 원조자금이나 기술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사업물량을 확보해주고 국가 이미지도 고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관·산유착에 따른 투명성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서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문에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강남·영동지구, 여의도 개발과 같은 기존 시내의 유흥지를 개발하는 패턴에서 울산, 창원 등 공업단지를 베이스로 하는 신도시 개발이 뒤따랐고, 수도권 신도시를 거쳐 최근에는 기업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삼일빌딩에서 63빌딩을 거쳐 2000년대 들어 초고층 주거 건물인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등이 등장하였고, 지금은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업을 들여다보면 산업 내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업체수가 너무 많고, 시장상황이 비관적이며,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의견이 필요 합니다.

이복남: 인력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이 있고, 연구가 있고, 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연관이 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목·건축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외국에 비해 너무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그수를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

“

건설업의당면 과제는다음의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세계표준화, 가격경쟁력 문제와직결되는생산 구조 개편,
그리고해외경쟁력과직결되는 언어 문제등입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기술자라도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문제해결에곤란을 겪으므로
외국어구사능력은글로벌화시대에서매우 중요하다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과제로는자금의안정성, 국제시장에서통할수있는
인력 발굴, 노령화대책 등을들 수 있습니다.



이순병 부사장

절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이제는그트라이앵글을정상가동시켜
줄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질적인부분도심각합니다. 최근건설
교통 부문R&D 예산을보면인력양성에대한 투자가 전혀 배정되
지않았습니다. 정부에서인력부문을너무등한시하고있는상황입
니다. 대학에서도기초인력양성에서끝내지말고생애교육을통해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는기능으로돌아갔으면합니다. 자원중에가장중요한것이
인력이라고보는데 양에서질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생
각합니다.

김중훈 : 인력문제를많이얘기하시는데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
다. 기술인력문제와기능인력문제는구분해서봐야합니다. 기술
인력문제는대학이과잉공급하고있는데어느정도공감하는데
장기적인 수요 및 공급을 전망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능
인력입니다. 기존의건설근로자들이노령화되고있지만신규인력
진입이거의안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더욱심각해져산업자체가
완전히공동화될수있는여지가많습니다. 그런데도기업이나정부
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차단하면건설산업자체가마비될수있는수준에와있습니다.

미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세계적인 경향이원스톱서비스, 싱
글 리스판시빌리티 개념으로 계약제도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경우에특히많은데, 어느업체에맡겼을경우처음부터끝
까지도털솔루션을제공하는이러한역량을키워야합니다. 그기본
은 E(화)와금융의융합이라할수있습니다. 일부선진기업들이노
력은하지만글로벌경쟁에서는아직많이취약한부분입니다.

국제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를
할때너무한국사람위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잘못
된생각입니다. 엔지니어들도선진국엔지니어를포함해서많은제3
국엔지니어가주축이되고한국인력이적게나가는구조의현장구
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 : 지금부터는마지막으로미래비전에대한종합적인의견을들
어보겠습니다.

심옥진 : 건설의미래를논할 때특히 중요한 것이기업의노력입니
다. 시장이개방되고경쟁이커지는상황에서국제경쟁력은국내의
사업을가릴 것없이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건설회사가운데규
모가있는곳들은글로벌기업또는다국적기업으로변신하는노력
이있어야합니다. 쉬운말로세계 지도를 놓고지역마다진출전략
을표시할수있는정도의다국적기업의면모를갖추어야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M&A,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디벨로퍼부문을
자유롭게전략적으로구사할수있는그런능력을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사건의발단은딜레마라고합니다. 진화가늦은거북
이는 속도는 포기하고 깎뎀기를무겁게하지만 날이갈수록 체력은
감퇴됩니다. 미래는현재로부터진화된 모습을 갖게 마련인데 건설
은 진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구조입니다. 건설산업의모습은 비교적
진화가빠르지않다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건설시스템
과 건설시장 변화 사이의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설시스템과건설시장의속도의차이를어떻게좁혀갈것인
지, 그딜레마를극복하는것이우리한테주요한과제가되겠습니다.

김중훈 : 미래를대비하는데있어가장우선해야할일은모든건설
관련 주체들이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는점입니다. 그동안의성장
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점, 즉불신, 구태, 관행등이있었는데, 지
나간 과거이며 건설산업은 체질적으로 그런 구조라여기지 말고 좀
더참다운미래를위해각부문들이진정한반성을해야합니다. 제대
로하고, 투명하게하고, 전문적으로해야합니다. 투명하지않으면서
그산업의미래를기대하는것은구시대적발상입니다.

해외로진출한기업들의문제는역시인력문제입니다. 1980년대
초중반이후 해외건설이 위축되면서 해외에서경험을 쌓은 인력유
입이근 20년간단절되었습니다. 해외인력을 산업적 · 국가적으로



정희용 회장

앞으로 해외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의 자금, 기술, 인력 등을 가지고
투자 사업으로 진출해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 용역 부문도 변해야 하는데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선진 업체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재정 담당, 투자 유치, 관리 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 회사들이 먼저 경쟁력을 높여 살 길을 찾아야 전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양성하는 것이 큰 과제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해외에서 많은 불신 사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각 업체들이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진입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선도 기업 위주이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로 북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도 세우고, 통일 시 어떤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산업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간에 연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이나 제도의 문제입니다. 300개가 넘는 법이나 제도가 현재 건설 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법 체계를 재개발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희용 : 앞으로 해외 사업의 경우 재정 사업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의 자금, 기술, 인력 등을 가지고 투자 사업으로 진출해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 용역 부문도 변해야 하는데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선진 업체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재정 담당, 투자 유치, 관리 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 회사들이 먼저 경쟁력을 높여 살 길을 찾아야 전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순병 : 건설 산업의 미래를 밝게 열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제도 및 정책이 너무 많이 변해왔습니다. 자꾸 새로운 제도와 법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 부문이 우수 한 시설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기술자들이 스스로 능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아웃소싱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건설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생산성이나

가치창조업종을 적절히 선택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만 강조하지 말고 기획에서 운영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문화 혁신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 외의 이해 당사자와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건설 산업에 새로운 문화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복남 : 앞으로의 건설업 60년 슬로건은 글로벌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만의 브랜드 상품이나 기술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을 상품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과 제도, 특히 조달 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 기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술 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옥진 부회장과 이순병 부회장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시간과 돈이 더러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건설 문화를 만들어 산업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일 역시 건설업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오늘이 좌담을 마치면서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건설인들이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우리의 발전에 대해 노력해왔다는 흔적에 대해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현장을 다하지 않고 극복해준 많은 건설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난 60년 만들어준 전통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의 한국 건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정보통신부 산자부, 과기부는 미래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수록 장기적인 미래 연구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6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건설 관련 주체들이 다음 60년을 준비하는, 침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깊이 있는 토론에 임해주신 참석자들에 감사사를 드리면서 좌담회를 마칩니다. CJ

정리 : 안지용 jyahn@cerik.re.kr